

Jessica (6)



Jessica 는 저희 호스텔에서 낮을 많이 가리는 가장 막내입니다. '엘리시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호스텔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년 인생 중 최대 긴장 상태입니다.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잘 몰라서,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고 대답도 언니들이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에는 큰 소리로 친구들과 언니들과 떠들기도 하고 춤추고 노래도 합니다.

부모님도, 가족들도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제시카가 호스텔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가족들에게서 받는 좋은 영향과 함께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Sanjina (10)



Sanjina 는 ‘루비카,’ ‘뭉따’와 같은 마을에서 온 아이입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을 떠나 호스텔 생활을 하게 되어서 종종 학교에서나 호스텔에서 울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르두어를 할 줄 알아서, 마을에서 온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적응이 빨랐습니다.

대답도 잘 하고 선생님들의 말씀도 잘 알아 듣습니다. 순하고 말을 잘 들어서, 큰 언니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르두어를 곧 잘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딴청을 부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Warda (6)

Warda는 '루디'의 동생입니다. 부모님이 수년 전에 크리스찬 미들 스쿨에서 선생님이
로 근무하시면서 키프로 호스텔 안에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와르다가 태어나서 4~5개월까지 키프로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와르다의 당찬 성격과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으로, 온 지 일주일만에 완벽 적응을 했습
니다. 배가 고프면 우울해지고, 배만 부르면 만사가 행복한 아이입니다.

처음엔 언니인 루디가 와르다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해 주다가, 이젠 서서히 와르다 혼
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매일해서 그런지, 예배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또래 다른 아이
들에 비해 기도도 잘 합니다. 좋은 밭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
님이 와르다를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Asha (8)

Asha는 최근 기도편지에 소개했던 아이입니다. 아샤의 가족은 힌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아샤가 호스텔에서의 첫 날 많이 울고, 토하기를 반복해서, 부모님께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에도 기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아샤는 우르두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우르두어로 말하는 데에 자신감이 붙고 있습니다. 잘 웃고, 순둥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도 아샤를 챙겨주고 싶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Lachmi (8)



Lachmi는 바르칸 누나의 딸입니다. 신입생들 중에 가장 먼 곳에서 오는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깊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 본 적도 없고,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 본 적도 없는 아이입니다.

혹시나 환경적인 큰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겁이 없는 성격 덕분인지 오자마자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언니들한테 버릇없다고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힌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혀 말씀의 배경이 없을 뿐더러, 힌두 잡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라츠미의 남동생도 키프로 호스텔에 입학했습니다.

두 아이를 통해서 그 마을에 힌두 문화를 박살내고, 복음의 기치를 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Mariyam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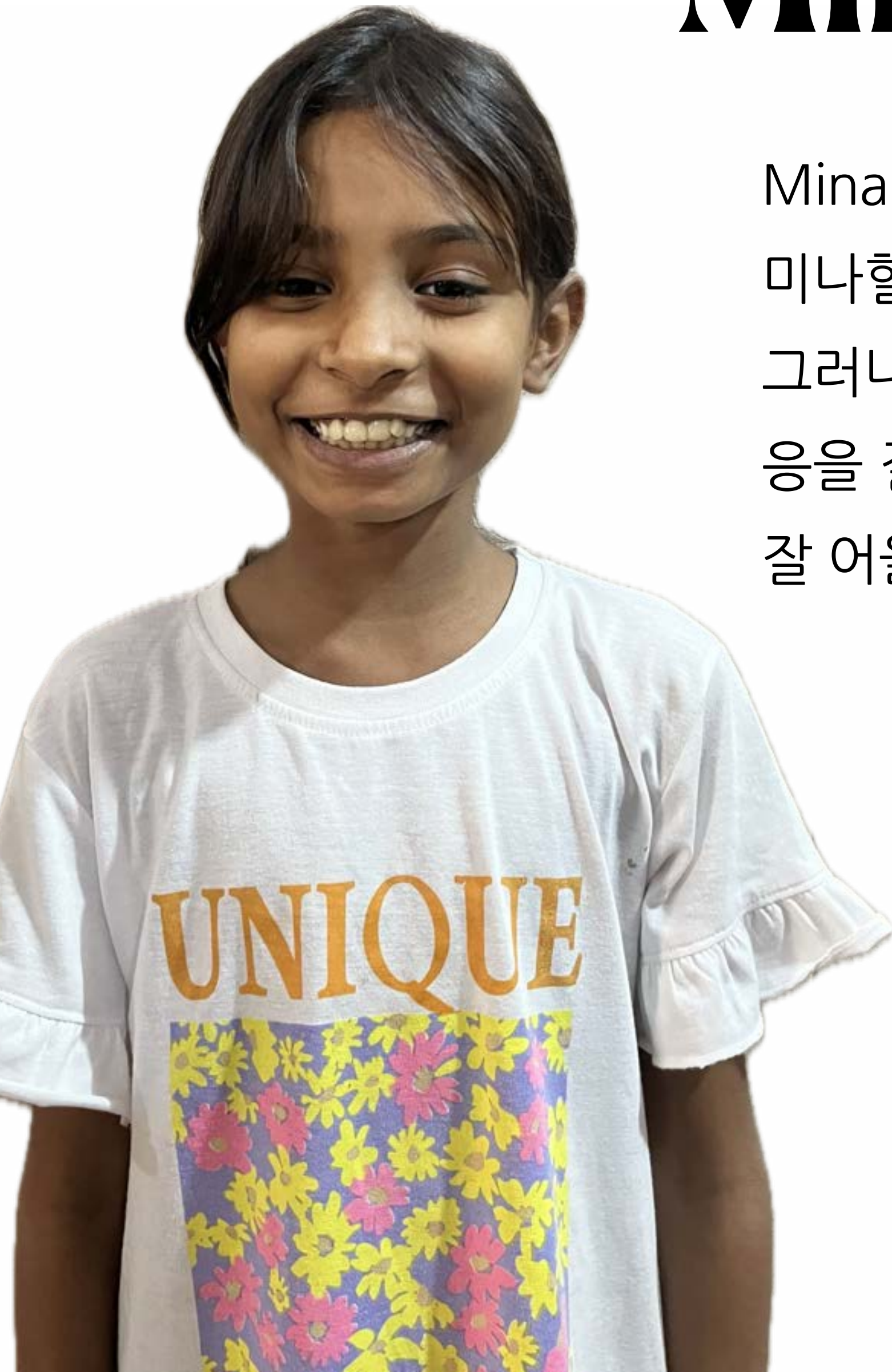
Mariyam은 하이데라바드 외곽 ‘코트리’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예배와 기도가 익숙한 아이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는 엄마 따라 겨우 앉아 있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기도를 해 본 적은 없는지,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또랑 또랑하게 잘 하지만, 때로는 그 또랑 또랑함으로 연약한 누군가를 찌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탓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에만 익숙한 아이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방법과, 예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혼이 나더라도 그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니,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미 건강하고 조건없는 사랑을 통해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Minahil (9)



Minahil은 한나훔이 위치한 하이데라바드에서 왔습니다.

미나힐은 대부분 무표정이고, 목소리도 말투도 무척 시크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기존 호스텔에 있던 아이들 중에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3~4일만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신입생인 한 친구와 유독 붙어 다니다가, 요즘은 모두와 잘 어울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대답을 잘 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학구열이 높으셔서, 여러번 신앙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관심은 온통 공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나힐과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Raju (4)

Raju는 올해 한나훔에 입학한 라츠미의 남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애교가 많아 매우 귀엽고 밝으며 붙임성이 좋은 성격을 가진 아이입니다. 형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함께 입학한 아이들 중에 친척들이 있어, 호스텔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주와 그의 가정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정이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신실한 증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agar (4)

Sagar는 빠뜨라스의 남동생입니다. 빠뜨라스는 동생이 반드시 키프로 호스텔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싸거르는 평소 밝고 애교가 많은 성격으로, 가족의 막내로서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호스텔 생활이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싸거르의 삶에 수많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ileep (4)

Dileep은 한나훔에 있는 엘리시바, 루비카와 같은 마을 출신으로,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딜립은 입학 기준에 비해 나이가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배우에 대한 남다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딜립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였고, 그 인도하심 속에 이번에 한나훔의 가족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딜립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예비되어, 듣고 배우는 모든 진리가 그 심령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딜립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amuel (4)

Samuel은 미르푸르카스 CC센터 출신의 학생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먼저 호스텔을 졸업한 학생의 고백과 변화를 지켜보며, 내 아이도 바른 신앙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면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다보니, 조금 우울한 면이 보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오랜 시간 선교사님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에 신앙의 환경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직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호스텔 생활을 통해 마주할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사무엘과 그의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